일본계 VC, 유럽 신흥기업 조준

- UTEC, 英동업와 공동 투자로, 유망기업이 증가, 일본진출도 지원

2021.9.1 일본경제신문

일본 국내 벤처캐피털(VC)이 유럽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음. 도쿄대 엣지캐피탈파트너스(UTEC) 영국의 VC와 연계, 연구개발형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에 나섬. 유럽에서는 거국적으로 기업가 육성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금융이나 의료 등의 분야에서 유망기업이 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 과제를 가진 일본으로의 진출도 지원.

UTEC은 8월 영국 VC인 아마데우스캐피탈파트너와 제휴를 시작했음. 아마데우스는 영국 암홀딩스의 공동 창업자인 허만하우저들이 1997년에 설립,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음. 운용 총액은 약 7억 1000만파운드(약 1000억엔)에 달하며, 약 180개사에 대한 투자실적을 갖고 있음.

UTEC은 아마데우스와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신흥기업에 공동투자함. 투자대상기업의 일본진출과 일본 대기업과의 협력을 중개하는 역할도 담당. 坂本教晃 파트너는 "저출산 고령화 등 유럽과 일본에서는 공통적인 사회과제도 많아, 기업간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라고 봄.

유니콘 잇달아

유럽에서는 국가를 걸고 스타트업 육성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음. "프렌치 테크'를 표방하는 프랑스는 2019년 3년간 50억 유로를 육성에 충당한다고 표명. 독일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의료기기를 다루는 신생기업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시행했음. 핀란드의 '슬랫쉬' 등 세계적인 창업자를 위한 이벤트도 많음.

미국 조사회사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니콘(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기업)은 영국이 31개사로 국별로 4위, 독일은 18개로 5위, 프랑스가 17개로 7위임.

유망한 성장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국내 VC가 움직이기 시작. NEXT BLUE(넥스트블루)는 올봄 일본과 유럽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1호 펀드를 시작했음. 이미 약 15억엔을 모으고 있고 14개사에 투자했음. 2021연내를 목표로 운용액 30억엔 규모로 추진.

새로운 업무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지속성장을 의식한 사업을 다루는 기업이 많음. 독일 블루팜은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우유 대신에 귀리를 원료로 한 음료를 개발함. 영국 뉴는 패션분야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입지 않는 의류를 이용자끼리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넥스트 블루의 井上加奈子 대표 파트너는 "유럽의 스타트업은 두 가지의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우선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고, 해결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받아들여지기 쉬움. 또한, 현지의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는 것임.

투자액은 3배

이와 같은 상황에 기대하는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국제회계사무소 KPMG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은 2021년 4~6월에 340억 달러(약 3조 7000억엔). 전년동기의 약 3배 늘어났음. 세계 전체의 성장(약 2 배)을 초과하는 수준.

한편, 미국(750억 달러)과 중국(190억 달러)에 비하면 자금유입이 적고 경쟁이 과열된 상태는 아님. "상장을 앞둔 '레이트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은 미국 투자자도 많지만, 창업초기 등은 아직도 투자자가 적은 상황"(넥스트 블루 井上 씨)라고 언급, 일본의 VC가 비교적 진입하기 쉬울 것 같음.

대형 금융에서도 SBI그룹(HD)가 최근 독일의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를 통해, 유럽의 스타트업 3개사에 투자했음. 댐이나 교량을 점검하는 드론

을 개발하는 스위스의 플라이어빌리티 등 기술개발형의 신흥기업이 중심임.

투자를 다룬 SBIHD의 독일 자회사의 米山直義 대표는 “현지는 IT(정보기술)계와 금융, 제조업 출신자 등 다양한 인재가 모여 있어, 매력적인 창업가가 많다"고 언급. 일본에서 유럽으로 향해지는 열기 시선은 당분간 식어들지 않을 것 같음.